

도, 가축인공수정사 대상 안전장구 지원 추진

가축개량 기술 교육 및 유전자 개량 핵심 인력 지원 통해 축산 생산성 향상

경기도가 가축인공수정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유전자 개량 기술 보급을 위해 '가축개량전문가 안전 확보 및 교육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인공수정 기술은 우수 종축의 유전 형질을 널리 보급해 가축의 개량과 고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질병 예방·치료,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4,7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가축인공수정사 80명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지원과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현장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끼,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와 사고 발

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정란 생산·이식 기술 등 개량 관련 전문 교육도 지원해 수태율 향상과 개량성과 증대 등 실질적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대상안전장구 지원 및 기술교육 추진(경기도청 제공)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개량전문가는 우수 유전자원 확산과 가축 개량을 선도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며 "현장에서

의 안전을 강화하고 가축인공수정사의 전문 역량을 높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농촌진흥청, 한우 방역·관리 지원 확대

결핵 검사 이력 제공·문자 안내 등 추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우 등 축산농장의 방역과 경영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하고, 활용 교육을 3월 1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누리집 게시판, 전화 상담, 전문 컨설팅, 대면 교육 등을 통해 농장 운영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개선 과정에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결핵 검사 결과 이력을 추가해 개체별 방역 관리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구제역 백신 접종 정보와 브루셀라 검사 결과뿐 아니

라 결핵 검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농가의 방역과 위생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우의 성장 단계에 맞는 문자 안내 기능을 추가해 비육 단계마다 필요한 핵심 관리 사항을 농장주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이를 농장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 협업 효율성을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3월 13일 창녕군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2회에 걸쳐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맞춤형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새로운 기능을 농가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축사로' 활용 선도 농가



▲농촌진흥청 제공

의 우수 사례도 공유된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이번 기능 개선은 실제 농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똑똑한 농장 관리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경기도, 가금류 축사 환경개선 등에 26억 7천만 원 투입

'농가 자율 소독' 유도하는 실질적 물품 지원

경기도가 올해 총 26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지원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사 환경 개선,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단열 지원에 집중한다. 폭염 및 혹한에 의한 생산성 저하와 폐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열페인트, 우레탄 시공 등 단열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안개분무기, 축사 환기시설 설치를 돕는다.

또한 가축전염병(AI 등)의 농가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전용 운반차량, 폐사기축 처리기 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령화된 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료·물 공급, 온·습도·환기, 질병·위생관리 등에 사용하는 각종 기계·장비 등을 보급해 노동 강도는 낮추고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가금류 등을 사육하는 도내 축산농가다. 불법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및 축산업 미허가(등락) 경영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기후 위기와 가축전염병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농가 맞춤형 지원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재난 안전 분야 국제표준 'ISO 22301' 인증 획득

축산물 이력관리 등 핵심 기능 정상 가동 체계 구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10일, 재난 안전 분야의 우수한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국제 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9년에 제정한 'ISO 22301'은 '업무 연속성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각종 재해나 재난 등으로 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해 부여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모범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수립 △재난 안전 전담 부서 신설 △재난 매뉴얼·절차서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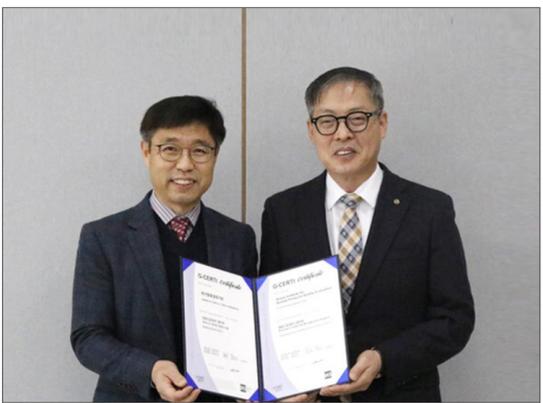
아울러 가축 방역 지원과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확보 등 국민과 근로자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이력제를 통한 방대한 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축 질병 확산 예방 지원 △위해(危害) 축산물 유통 차단 △등급·이력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 구축 등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응망을 가동 중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도 기관 본연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안전이기자
midal0210@naver.com



▲지난 10일 세종시 본원에서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오른쪽)이 인증서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보은옥천영동축협, 충북본부 농축협 본·지점 업적평가 '우수성과'

본점·옥천지점 모두 우수 사무소 표창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구희선)이 농협중앙회 충북본부가 실시한 2025년도 농축협 본·지점 업적평가에서 본점과 지점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대표 농축협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은옥천영동축협 본점은 '축협 본점부문 1

등 사무소 표창'을 수상했으며, 직원 개인 표창으로 본점 직원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옥천지점은 '축협 지점 부문 2등 사무소 표창'을 수상하며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직원 개인 표창으로 옥천지점 직원 2명이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가 주관

하는 농축협 본·지점 업적평가는 도내 농축협을 대상으로 신용사업, 경제사업, 건전경영, 고객서비스, 조직관리 등 다양한 경영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사무소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조합원 중심 경영과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을 통해 신용·경제사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축산농가 소

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보은옥천영동축협 구희선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 관 고객의 신뢰, 그리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실의 증대와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
kya0712@daum.net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p>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p> <p>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p>	<p>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p> <p>※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p>	<p>3단계 축사 출입시 강화 갈아신기·손 소독</p> <p>세척수·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p> <p>※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p>	<p>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p> <p>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p>
--	---	---	--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 농장 내부, 사료빈·퇴사차·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 방지 금지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